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0호 【루게 제23092호】주체99(2010)년 5월 20일(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흥단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흥단군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오매에도 그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또다시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은 대흥단군은 이날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조선로동당 광장대위회 책임비서 김희택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제1부부장들인 주규창동지, 리계강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대흥단군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동일동지, 대흥단군인민위원회 위원장 박현동지, 대흥단군농업경영위원회 위원장 원택범동지와 기관, 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켜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 들고 강성대국을 향하여 폭풍처럼 내달리고 있는 대흥단군의 근로자들은 감자농사를 비롯한 당의 경제정책관철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는 앙양을 일으키고 있다.

대흥단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여러차례 군에 찾아오시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어버이장군님을 맞이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대흥단군농업경영위원회산하 백산돼지목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목장의 지업원들은 고산지대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축산체계를 세워 군내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돼지고기생산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감자산지인 대흥단군의 경제적토대와 최신축산과학기술에 의거한 선진적인 돼지고기생산방법이 도입된 결과 목장의 생산량은 종전에 비해 수배로 늘어나 주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목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목장의 내부와 외부의 부를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기술장비 및 사양관리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목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짧은 기간에 목장을 현대적인 돼지고기생산기지로 전변시키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육성번역을 위해 헌신분투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백산돼지목장은 건설물의 질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을뿐아니라 모든 공정이 지대적특성에 맞게 과학화, 집약화된 현대적인 고기생산기지이라고 하시면서 주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가 마련되는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산지대의 추위에 견디는 우량한 새끼돼지생산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그 사양관리방법에서 성공한것은 대단한 성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인민의 부리증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온 종업원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목장에서 돼지배설물을 리용한 유기질비료생산을 늘여 알곡소출을 높이고 그에 토대하여 고기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인것은 잘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목장의 경험은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철저히 세워 농업과 축산을 다같이 발전시키는데 대한 당의 축산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백산돼지목장은 대흥단군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목장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목장에서 돼지고기 생산을 부단히 늘이기 위해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계속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군의 기후후토와 사료조건에 맞으면서도 빨리 자라는 우량품종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높은 생물공학적 요구에 기초하고있는 현대적인 축산은 고도로 과학화될 때 커다란 성과를 달성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동시에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축산물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사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수의방역사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 풍족하고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기생산과 함께 갖가지 고기 및 부산물가공체계를 세우는것을 축산의 어길수 없는 철칙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대흥단감자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맛있는 감자가공품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높이신 뜻을 빛나게 실현할 불타는 결의를 안고 생산공정의 과학화, 현대화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실현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생산량을 1.5배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자랑스런 성과를 거두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혁소개실과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진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감자처리공정의 시설들과 기계들의 자동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공장의 종업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현대화공사를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생산장성의 튼튼한 물밑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철저히 확립된 정결한 작업장들과 기계들마다에서 분량과 옛, 술을 비롯한 갖가지 감자가공제품들이 쉬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광경을 보시고 이제는 대흥단군인민들에게 감자를 원료로 하는 질 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공급할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흥단감자가공공장은 군내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향상

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것만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생산능력이 대단히 큰 조건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제품의 규격과 용도에 따르는 용기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는 맛 좋고 다양한 감자가공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감자가공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제품의 가치수를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료품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공급하는것이므로 최상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높은 위생문화적환경을 보장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대흥단읍에 새로 건설된 사회급양봉사기지의 하나인 국수집을 돌아보시였다.

군의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대흥단군 인민들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아끼지 않는다는 어버이장군님의 대해감을 사랑과 은정이 하루빨리 가닿도록 하기 위해 국수집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훌륭히 일떠세우고 그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특색있게 건설된 국수집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고 갖가지 감자요리들과 돼지고기요리들을 보아주시면서 건설정형과 운영실태를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미감과 지대적특성에 맞게 건설의 설계와 시공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운영실태들도 잘 갖추어졌다고 하시면서 군의 일군들과 식당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도시의 식당을 부럽지 않는 훌륭한 급양봉사기지를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식당에서 군의 특산품인 감자로 국수는 물론 갖가지 특색있는 요리를 질 좋게 만들어 봉사하여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굴지의 감자산지인 대흥단군이 펼쳐놓은 이 이채로운 풍경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다시금 특특히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일은 없다고 하시며 감자요리의 가치수를 높이고 질을 부단히 높여 주민들에게 더 잘 봉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훌륭히 꾸려진 대흥단읍을 돌아보시면서 도시경영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군소재지를 정신이 번쩍드는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흥단읍은 건물들과 도로들이 하나같이 깨끗하고 규모가 있으며 편의봉사시설들도 아담하고 실용성있게 잘 배치되었다고 하시면서 이곳 일군들의 사업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흥단군은 어데가나 날에 날마다 새로운 비약과 혁신이 창조되어 사회주의기상이 힘있게 내세우고 인민들의 만복이 넘쳐나는 강성대국의 휘황한 실체를 눈앞에 펼쳐보이기 시작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찬란한 현실은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노도쳐 내달리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흥단군의 인민들이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눈부신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농업전선의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대흥단군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영예로운 전투과업을 결사관철하여 강성대국의 명마루에 승리의 붉은기를 선창으로 휘날려갈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성황리에 공연되고있는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신 소식을 로씨야와 라오스통신이 보도하였다.

9일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통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립연극단에서 새로 창조한 경희극 《산울림》을 또다시 관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립연극단에 예술인들이 1960년대의 조선의 농촌현실을 보여주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감사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런 명작들을 더 많이 창조하여 강성대국건설전에 펼쳐나선 조선의 군대와 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12일 라오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경희극 《산울림》은 천리마 시대 인간들의 위대한 포부와 혁명적력판주의정신, 진취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16일과 17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는 백두산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공사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청년건설자들이 엄혹한 자연환경과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귀중한 결실은 조선청년들만이 지닐수 있는 위대한 정신력의 빛나는 발현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가장 활력있는 전투부대인 청년대군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주역에 담당하고있기에 선원들이 개혁

한 조선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은 굳건히 이어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건설자들이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혁명과 시대를 지닌 성스러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통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백두산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은 두 제국주의강적을 물리친 영웅적나라이며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기적의 나라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조선이 이처럼 빛나는 승리와 기적을 이룩하게 한 불굴의 힘의 원천이었다.

조선혁명의 년대기마다 높이 발휘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에 와서 더욱 높이 발양

위대한 정신력의 근본원천

국제사회계가 격찬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 백승의 기치인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 확고한 신조로 간직하고 온갖 시련과 도전을 짓부셔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을 이룩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에 대한 격찬이 국제사회계에서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네팔신문 《아르판》은 조선혁명의 력사는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개척되고 승리로 장식되어 전진하여야 하는 혁명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은 두 제국주의강적을 물리친 영웅적나라이며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기적의 나라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조선이 이처럼 빛나는 승리와 기적을 이룩하게 한 불굴의 힘의 원천이었다.

조선혁명의 년대기마다 높이 발휘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에 와서 더욱 높이 발양

되고있다. 령도자에 대한 조선의 천만 군민의 절대적인 믿음과 결사옹위정신을 꺾을 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파키스탄신문 《발루치스탄 타임스》는 조선의 국력에 대해 놀리지 말아야 할것은 그 어떤 측정수단으로도 가능할수 없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근본핵으로 하는 군대와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이 위대한 정신력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오늘과 같이 막강한 국력을 가질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 라고 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10여년전만 하여도 《붕괴》된다고 떠벌이던 조선이 오늘 강성대국으로 나래쳐오르고있는 것은 조선인민의 강한 정신력,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의 산물이다. 조선인민의 이 정신력은 멀지 않아 강성대국이라는 거창한 현실을 반드시 안아올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선군정치연구소 조영환은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였다.

조선인민은 하루빨리 통일번영하는 불패의 강국을 일떠세워 김일성민족의 존엄을 시대의 강성상봉에 올려세우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제국주의반동들에게 철추를 안기고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겠다는 드높은 혁명적열정,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낼수 있다는 담대한 의지와 배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선군조선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조국을 받드는 부리가 되려는 헌신의 정신력을 지니고있다.

조선인민이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높이 발휘하는 제일가는 정신력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나가는것이다.

21세기의 위인 김정일장군의 탁월한 령도따라 세계를 굴러보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돌진해가는 불굴의 조선인민은 참으로 제일가는 정신력의 최강자이다.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은 세계에 찬란히 빛난다. 본사기자

정론

무릉도원에 사과꽃이 피었다

사과꽃이 피었다!
화창한 봄을 맞아 일시에 땅을 물러치며 가지마다, 그루마다 맑고 하얀 꽃잎을 활짝 펼쳤다. 하늘의 흰구름이 내려앉은 듯, 바다가 통째로 꽃구름으로 바뀐 듯 여기 《선군 11경》이 사과꽃대결경을 이루었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외국방문의 대장정을 단행하고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천만군민의 축하의 꽃바구니인듯 류달리도 아름다운 황룡경을 펼친 이 장쾌한 화폭은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며칠전에는 산기슭과 길가에 연분홍빛 달걀배나무가 펼쳐진데 이어 오늘은 그 진달래가 정히 감싸안아 피어올린듯 신비의 조화를 이루며 유난히도 눈부신 빛을 뿌리는 원홍의 사과꽃.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이 생겨 두번째로 보게 되는 이해의 사과꽃결경은 아름다움에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최고의 장막이며 그것이 담고있는 깊은 뜻과 가슴뜨거운 사연에 있어서도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얼마나 사무치게 그려오던 행복의 백파결경인가.

한껏 호호하며 시원하고 달디단 사과꽃의 특이한 향기가 봄바람에 실려 온몸에 둘러돈다. 그 꽃바다속에 한번 몸을 맡으면 꿈의 환상세계에 휩싸인것 같은 즐거움과 환희로 이쁨할수 없는 격동에 가슴이 설레인다.

노래를 짓는다면 이보다 훌륭한 노래가 어디 있을것이며 그림을 그린다면 이보다 훌륭한 화화가 어디 있을것인가.

홍하는 세월엔 좋은 일도 많고 이 땅의 봄은 만복의 열매를 약속하는 환희의 계절이다.

위성이 날아오른 선군의 푸른 하늘아래 행복이 무르익는 강성대국무릉도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오늘의 사과꽃바다가 눈앞의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무릉도원에 사과꽃이 피었다!
참으로 고난을 헤치면서, 패일을 꿈꾸면서 우리 얼마나 이날을 그리며 기다려왔는가.

무릉도원과 사과꽃, 행복증의 가장 눈부신 번영, 이상증의 가장 아름다운 리상이 여기에 다 비껴있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소원이 풀리고 우리 장군님의 리상이 실현되어 마침내 우리앞에 천만가지 행복이 꿈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쏟아지게 되었다는 제일 기본 소식을 온 나라에 알리는 호명한 사변이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리게 시작했고 그 승리의 문패를 다는 소리가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울리고있는 대비약의 시대를 상징하는 장쾌한 화폭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동강파수종합농장건설은 당의 위대한 구상에 의하여 진행된 선군시대의 위대한 대자연개조사업입니다. 나는 10년전부터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과일생산기지를 건설하려고 생각하였는데 그 구상이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자연의 피고지는 꽃은 많아도 사과꽃은

그 의미가 다르다.

백파중에서도 제일 귀하고 탐스러운 사과, 우리 생활에서 하찮은 사연들과 깊이 얽혀져있는 이 열매의 꽃을 어찌 레사로운 봄꽃에 비길수 있겠는가.

사과꽃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향유를 주는 행복의 상징이다.

소박한 꿈과 아름다운 리상도 여기에 실어보고 문명과 행복에 대한 표상도 여기에 담아 수없이 말해왔다.

더우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과라는 류다른 력사와 많은 의미를 안고있으며 그것은 우리 생활에서 가지가지의 이야기들과 연결되어있다.

항일의 나날 아동단원들에게 조국의 향기를 느끼도록 조선사과를 보내주시고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대규모파수업을 구상하신 어버이수령님.

력사적인 북청확대회의를 계기로 파수업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그 은혜로운 손길아래 황금나무 늑금나무 산에 심었소 심었더니 마을에 웃음이 폈소 치너를 아진났에 꽃모며 웃고 저녁에는 꽃속에서 노래부르러오는 행복의 노래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되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북방의 로동계급에게 과일을 마음껏 먹이지 못하는 안락가움을 안으시고 사업수첩의 갈피에 《자강도... 북승아》라는 불멸의 친필을 남기신 그 가슴치는 사연을 후손만대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지난해 마가울의 그날 원홍명을 찾으며 이제 여기에 사과꽃이 피면 불만할것이라고, 정방산에 가서 꽃구경을 할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사과꽃구경을 하면 될것이라고 그리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 마음을 안고 사과꽃들이 류달리도 활짝 피었다.

뜻꽃들이 서둘러 산허리에 일찍 피어난 진달래를 봄의 선구자라고 한다. 진달래가 만물이 소생하는 자연의 봄을 부르는 꽃이라면 우리의 사과꽃은 창조적 봄, 향유의 가을을 부르는 시대의 상징화이다.

진희의 나날 월미도의 영웅이가 조국의 노래를 부르며 그려보던 그 사과꽃이 오늘 높은 행복의 봄을 심할것으로 알리는 강성대국번영의 꽃, 만복의 가을을 부르는 사회주의웃음꽃으로 시대의 머리위에 높이 솟아 황홀하게 피었다.

이 사과꽃바다를 보면 산야에는 백파가 주렁지고 벌에는 황금의 비이삭이며 오곡이 물결칠 풍요한 조국의 가을이 눈앞에 안겨오고 이 사과꽃의 아름다움에 가슴 설레이느라던 매대와 집집마다에 훌륭한 우리 제품, 우리 소비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가득차넘칠 행복의 패일이 환희롭게 보인다.

사과꽃이야말로 리상과 문명의 상징이다.

그저 배불리 먹고 잘 사는것이 아니라 백파의 진귀한 맛을 마음껏 보면서 먹어도 제일 훌륭한것을 마음껏 먹고 누려도 제일 문명하고 부러운 락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뜻이다.

사과꽃을 더불어 쌓이 넘쳐나는 나라, 쌓이 남아돌아가는 나라의 풍요한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될 그날이 안겨오고 주체철의 폭포와 흰눈같은 비닐론습,

우리 식 CNC화회의 노래가 더 자랑스럽게 우리의 가슴을 흥분시킨다.

꽃은 말이 없다.

그러나 행복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원홍의 사과꽃에는 천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언어가 있다.

시련의 눈보라를 헤치며 역적으로 다져온 우리의 국력이 마침내 천만가지 행복의 열매를 안아오게 되었다는 승리와 기쁨의 속삭임이 이 꽃에 실려온다. 오늘이 이 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어버이의 불멸의 애국헌신을 우리러 격정에 목매는 인민의 목소리가 이 꽃바다에 메아리쳐온다.

자연의 봄을 부르는 꽃은 저절로 피어나지만 창조와 번영의 봄을 알리는 사과꽃은 결코 피지 않는다.

사나운 겨울의 모진 강추위속에서도 끝끝내 땅을 터치고야만 원홍명의 사과꽃바다를 어찌 꽃의 생리만만 다 헤아릴수 있랴.

《선군 11경》의 이 사과꽃바다를 펼쳐 시려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강행군의 천만리, 로고의 자욱자욱이 눈물겹게 되새겨진다.

고난의 광풍속에서도 패일의 봄을 마음속에서 안으시고 그 불, 러명의 봄, 해돋이의 봄, 락인의 봄을 하루빨리 이 땅우에 펼쳐시려 위임없이 선군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우리 장군님.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자리라, 그 길에서 인민의 행복을 기어이 안아오리라 마음다지시며 불철주야 헤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당과 더불어 마침내 승리의 동은 트고야말았고 눈보라를 밀어내며 행복의 봄기운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사과꽃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선군의 만년시련을 헤쳐오신 우리 장군님께서 뜨거운 심장의 열기로 피운 승리의 꽃, 행복의 꽃이다.

인류음악사에는 자기의 소원과 진정을 기울여 백만송이 장미꽃을 피워놓았다는 감동깊은 사랑의 찬가가 있었다.

그러나 한 나라 명도자가 자기 인민을 위하여, 조국과 후손만대를 위하여 억만공수의 땀을 들이고 하도록 머리속일 심혈을 기울이고 또 기울여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백파선경, 사과꽃바다를 눈부시게 펼쳐놓은 이런 이야기는 고금동서에 있어본적이 없다.

인민의 리상이 높아졌다.

배불리 먹으며 비단옷에 기와집을 쓰고 사는것을 그려보던 우리 인민이 만수무강과 같은 호화살림집을 쓰고 CNC화와 같은 최첨단기술문명을 향유하고 칠감상어와 최귀한 자라리리에 세계적으로 제일 향기롭고 맛있는 사과까지 누구나 마음껏 먹으면서 말그대로 온 세상이 그저 부러워하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러보는 최고의 문명,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하자는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리상의 높이이다.

아름다움으로만 끝나는 꽃이 아니라 만복의 열매를 안고오는 꽃이기에, 인민을 잘 살게 하시려는 자신의 리상이 비친 꽃이기에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꽃중에서도 사과꽃을 제일 사랑하신다.

그래서 마나면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 시면서서 매달이 원홍명을 찾아 파수발전실현장을 돌아보시고 무릉도원으로 더

훌륭하게 가꾸어주시길 구상을 무르익히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먼곳에 계시어도 기운이 낮아지고 큰 비가 내릴 때면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의 사과포전부터 걱정하시고 나무모들이 운반도중에 손상이 갈세라 마음쓰시며 일일이 대책도 세워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무수한 로고의 낮과 밤이 가슴을 친다.

사람들이여, 각종 현대적인 기계기술 수단들이 그쁘지 갖추어져 원홍명의 천지개벽을 일으킬 때 거기에 바쳐진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세계를 우리 다 알고있었던가.

파수발전적을 지난해보다 몇배나 더 늘일대 대한 대담한 설계도를 안겨주시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비범한 명안으로 가로수들을 없애고 순간에 일망무제한 파수의 대평야가 눈앞에 펼쳐지도록 해주신 그이의 명도의 손길은 만사람의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 은혜로운 손길아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의 흐름을 타고 각종 사과가공제품들이 쏟아져나올 가공공장과 저장고가 일떠서고 파수와 축산, 축산과 파수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이루게 될 현대적인 배지공장이 건설되고있다.

원홍명은 조선의 무릉도원이자 세계의 무릉도원이다.

파수업에서 제노라하는 나라들도 많지만 우리 조선의 대동강파수종합농장과 같은 그런 멋지고 황홀하고 모든 면에서 최상의 경지에 오른 현대파수의 표본은 없다.

얼마간 이곳을 찾은 유럽의 권위있는 파수업자는 연방 탄성을 터뜨리면서 조선에서 사과밭을 꾸민다고 해서 여러가지로 생각해보았지만 나의 상상이 완전히 뒤집혔다, 세계에 이런 최한한것은 없다. 이 파수농장은 《아시아의 등대》이 세계의 리상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에는 외국의 빛들이 놀라 는것외에 더 규모가 크고 더 장쾌한 과일 농장이 철령의 기슭 고산방에도 일어서고 있으며 조국은 얼마나 눈부시게 비약하고 있으며 우리의 패일은 얼마나 많은 행복을 약속하고있는가.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2010년, 이해의 승리를 가장 뚜렷하게 상징하는 원홍의 사과꽃은 오늘의 행복만이 아니라 2011년의 더 눈부신 비약, 2012년 강성대국승리의 만세소리로 우리모두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있다.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왔듯이, 시련을 이겨내고 꽃이 폈듯이 마침내 우리는 간고한 투쟁에 소리쳐며 잘 살 날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방방곡곡 어디서나 원홍의 천지개벽과 같은 창조의 《사과꽃》, 기쁨의 《사과꽃》, 행복의 《사과꽃》이 만발하고있다.

사과꽃은 하얗다. 그러나 그 뿌리는 너무도 뜨겁다.

선경의 바다를 이룬 저 한송이한송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진하고진한 피땀의 무수한 결정체로 안겨들고 환희로움과 기쁨, 한껏 터뜨리게 되는 웃음과 함께 어찌하여 이쁨할수 없는 격정으로 가슴이 후터워지게 되는것인가.

사과꽃피에는 병사의 발자국이 있고

무릉도원의 최한한 선경밭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넋원을 심장에 안은 우리의 총직한 내무군병사들의 애국의 피땀이 뿌리외도 꽃이 묻혀있다.

활짝 웃어 권 한그루한그루의 사과나무와 나란히 서있는 저 수많은 지지대들, 마치 지극한 정성파 온 넋을 기울여 사과 나무를 안아키워 훌륭히 꽃을 피워놓고 그열에 그대로 굳어진 병사의 모습같아 무심히 바라볼수 없다.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는 지난해 11월 천지개벽을 이룬 원홍명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파수농장의 훌륭한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우리 내무군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해볼수 없다고, 이것은 지성이 아니고, 무엇을 보아도 내무군의 총정이 알린다고 하였던 그 말씀이 쟁쟁히 울려온다.

꽃은 정성의 산물이며 열매는 피땀의 결실이다.

울애의 겨울은 얼마나 엄혹했던가.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추위는 우리 내무군병사들의 의지를 시험이라도 하듯 더욱 가슴을 부렸고 열대로 언 땅에서는 무명익이 삼날에 불지를 일구었다.

생각해보라. 평양에서 백두산까지 몇번은 오고가야 하는 4,000여리나 되는 거리, 그 거리만큼 전호식구명인들은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해체된 병사들의 초인간적인 정신력과 결사의 실행력은 과연 어디서 분출한것이었는가.

이제 나무모들을 심고 흙을 묻으면 누구도 볼수 없다. 그러나 단 1cm의 허술원차도 용납치 않는 그들이었고 하나 하나 재로 친 부식토의 혼합비율을 철저히 준수해온 그들, 땅속깊이 자기들의 애국을, 향심을 소리없이 깨우치게 묻은 우리의 내무군병사들이었다.

강행군원지지도같이 쌓인 어버이장군님의 로고를 우리의 사과꽃향기로 풀어 드리라.

바로 이것이 뿌리깊은 삶의 신조이고 파수업자에게 전투의 낮과 밤이 흐르는 그 험겨운 나날에도 하루같이 장군님 지나가실 도로를 쓸고 닦으며 흙이 깊은 밤에라도 장군님께서 문득 찾아오실 것만 같아 쉼을 지퍼들고 순간도 작업현장을 떠나지 못한 우리 병사들이었다.

그 정성의 대오가 그리움과 결사관철로 한치한치 펼쳐간 무릉도원의 대지, 황홀한 절경앞에서 우리는 이 사과꽃의 이름을 다시 달아본다.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인민과 후손만대를 위하여 내무군병사들이 피땀으로 피워올린 총대의 꽃, 애국의 꽃, 패일의 꽃!

정녕 이것이 강성대국의 봄을 불러 제일먼저 피어난 원홍의 사과꽃의 진정한 이름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장군님 시대에 우리 내무군은 새로운 모습으로 조국과 인민앞에 서 있다.

사회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제산을 지켜 총포성없는 최전선에 선 그 모습도 미더움과 행복의 불빛이 흐르는 깊은 밤에도, 기쁨의 웃음소리 넘칠 때에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위훈의 자욱을 짙어가는 그들의 공적을 인민은 잊지 못한다.

그것만도 고맙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내무군인데 오늘은 번영의 밀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어 최한한 백파락원을 인민앞에 펼쳐놓았으니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이런 총직한 병사들, 조국과 후손만대를 위해 피땀을 아낌없이 바치는 이런 훌륭한 인민의 복무자가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내무군은 조국의 그 어디에나 이런 훌륭한 행복의 《사과꽃》을 많이도 피워올리고있다.

무지개동글과 타조목장, 동평양대극장과 대동문영화관,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과 전차도서관을 일떠세우는데서 그리고 강성대국건설의 《1211고지》인 회천발전소건설장에서 내무군병사들은 위훈의 기념비를 수많은 세웠으며 또 세워 가고있다.

《선군 11경》의 사과꽃바다는 우리 내무군이 애국의 심장으로 제일먼저 달아놓은 강성대국의 문패라고 말할수 있다.

여기 원홍의 천지개벽앞에서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산울림》창조집단의 혁명성과 전투력을 평가하시면서 하신 귀중한 말씀을 다시금 소중히 새겨 보게 된다.

충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내무군병사들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구상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심장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이야말로 열렬하고 절대적인 충실성, 용감하고 희생적인 성실성, 순결하고 변함없는 진실성을 지닌 진짜배기혁명가들, 애국자들이다.

사과꽃결경앞에서 그것이 너무도 소중하고 감격에 겨워 저마다 울고웃으며 목메인 소리로 터치던 병사들의 웨침이 우리의 심장을 두드린다.

《장군님, 사과꽃이 폈습니다!》
누군들이 말에 격정의 눈물을 삼키지 않을수 있랴.

자나깨나 꿈결에도 그려보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아름다운 사과꽃결경속에서 모시고있는 병사들의 하늘에 닿은 념원은 온 강산에 그대로 메아리치는 이 웨침, 우리는 마침내 이것으로 강성대국의 지상혁명이 눈앞에 있다는 조국의 목소리가 그대로 울리는 이 웨침에 정령 가슴이 뜨거워오른다.

웃은 가을을 속삭인다.
이제 파수원의 포전도로를 오가는 트럭도르의 신명난 동음이 사과파는 처녀들의 노래를 담아내고 푸른 하늘가에 울려갈것이며 평양으로 뻗은 도로우로는 탐스런 과일을 실은 차들이 쟁쟁 속력을 높일것이다. 그리고 내 나라의 집집마다에서는 사과를 받아안고 부르는 복반은 인민의 노래소리가 불밝은 저녁거리를 더욱 이채로운 음향으로 장식할것이다.

사람들이여, 울국불국 향기롭고 따뜻한 사과를 마음껏 먹게 될 호명한 그날을 기다리시라.

오늘은 봄을 맞아 여기 원홍명에 사과꽃바다가 펼쳐졌듯이 비약하는 내 나라의 날과 달을 이어, 계절과 해를 이어 끝없이 황홀한 행복의 새시대를 펼쳐가게 될 것이며 이런 번영과 사변의 련속속에서 위대한 김일성조선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눈부시게 솟아오르게 될것이다.

고 현 주, 손 소 연



강성번영하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 행복의 무릉도원으로 펼쳐진 대동강파수종합농장의 사과꽃 바다

본사기자 정순애 특필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꽃피고 있는 내 조국에 또 하나의 황홀경이 희한하게 펼쳐졌다.

지난 4월 14일 태양절 기념 축포야회와 더불어 첫 선을 보인 대동강의 춤추는 분수가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를 모으고 있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면 대동강에는 춤추는 분수가 주체 사상탑을 중심으로 자기의 기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급시 진주보석들을 휘둘러놓듯 가지각색의 황홀한 빛깔로 변하는 대동강의 물면, 하늘방울을 울리는 경쾌하고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아름다운 물동을 펼치는 분수...

대동강물결이 불시에 킬을 솟구며 보라빛물결사막으로 변하는 가운데 《강성대국이 보인다》라는 분수의 제명이 뚜렷이 나타난다.

《우리의 김정일동지》,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 《꽃잎을 삼킬로의 메아리》, 《떠나는 마음》을 비롯한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노래들과 《회귀광》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 생활을 담은 노래들, 《돌파하라 최첨단》, 《통일 6.15》 등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비친 수직곡의 노래들에 맞추어 아름다운 춤가락을 조화롭게 펼치는 분수.

상공 수직m까지 치달아오르는 주분수도 장쾌하지만 어찌 결코 동시에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불시에 물꽃바발을 엮기도 하며 갖가지 기교를 부리는 분수들의 황홀함을 어디에 비가랴.

어찌 보면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났듯 하고 또 어찌 보면

강성대국래일을 펼쳐보이는 대동강의 춤추는 분수

최근에 창작된 명곡 《우리 집사람》의 선율이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다. 대동강의 춤추는 분수는 그것을 이루는 분수들의 종류에 있어서나, 형상능력에 있어서 최상급이다.

대동강의 춤추는 분수는 주분수, 보조분수, 원형분수들이 분수, 달리기분수, 비둘기모양분수, 부채형분수, 수직식 조종분수, 불분수, 수막분수, 대형정사분수 등 10여종에 수십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물영사막을 만드는 발사기며 각종 영사화면을 재현시키는 투영기, 분수의 천변만화가하는 색조화를 일으키는 수직계의 투광등과 레이저천원색조명기며 800개나 되는 채색등과 함께 분수에 음악을 결합시키는데 리용되는 많은

심과 광만에 넘쳐 생활할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장군님, 대동강의 춤추는 분수는 그것을 이루는 분수들의 종류에 있어서나, 형상능력에 있어서 최상급이다.

대동강의 춤추는 분수는 주분수, 보조분수, 원형분수들이 분수, 달리기분수, 비둘기모양분수, 부채형분수, 수직식 조종분수, 불분수, 수막분수, 대형정사분수 등 10여종에 수십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물영사막을 만드는 발사기며 각종 영사화면을 재현시키는 투영기, 분수의 천변만화가하는 색조화를 일으키는 수직계의 투광등과 레이저천원색조명기며 800개나 되는 채색등과 함께 분수에 음악을 결합시키는데 리용되는 많은

은 증폭기들과 조종설비들이 따르고 있다.

이 모든것을 컴퓨터로 조작하게 되어있는 대동강의 춤추는 분수는 그 형식에서 민족적이고 내용에서 사회주의적이며 운영방식 또한 최첨단수준이다.

대동강의 춤추는 분수는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한 우리 인민에게 위대한 어머니당이 안겨준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이며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적재보이다.

하기에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춤추는 분수와 더불어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이며 향도자인 위대한 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끝없이 분출하고 당의 영도자라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더 큰 비약

이렇게 시작된 그의 자랑은 끝이 없을상상였다.

동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자 며칠 안되어 동사무소로는 수많은 주민들이 찾아왔다.

도로정리를 할때는 보기에 도 시원하게 넓게 하고자, 놀이터들도 특색이 있게 꾸리자고 하면서 기발한 착상들과 의견들을 안고 찾아오는 그들을 보면서 일꾼들은 대중의 힘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부터 활기를 띠고 진행되었다. 출근과 퇴근후엔 스스로 일편에 뛰어들어 땅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치는 주민들의 불같은 모습이 어디서나 보이곤 하였다.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마련해가

과 혁신을 안아올 결의가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다.

대동강, 단군조선의 유구한 력사가 어리고 부강번영할 강성대국의 매일이 비껴있는 어머니강-대동강.

누리에 빛을 뿌리는 주체사상탑이 이 강변에 솟아있고 옥류만이며 5월 1일경까지, 통일거리의 웅장화려한 모습도 이 강변에서 빛을 뿌리고있다.

대동강을 락원의 강, 만복의 강으로 전변시켜주신 우리 수령님의 이인위권의 위대한 사랑의 한생도 여기에 어려있어 인민들의 가슴속에 더더욱 깊은 생각을 안겨주는 대동강.

오늘은 춤추는 분수와 더불어 그 모습 더욱 자랑스러운 희망의 강, 광만의 강-대동강.

이제 또 얼마나 많은 위훈의 서사시가 대동강, 너와 함께 엮여지랴.

대동강변에 끝없는 기쁨과 광만, 보람찬 희열이 가득 차던치의 속에 노래 《강성대국이 보인다》의 선율이 환희롭게 울려져다.

... 장군님 세계 향해 대문을 열고 수령님 새집안이 축복하시네 강성대국이 보인다 달려나가자 더 빨리 조국여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조국여 장군님따라 앞으로

그렇다. 강성대국이 보인다. 춤추는 분수의 아름다운 물동속에서 주체철과 주체춤, 주체비록포도들이 가슴부풀게 안

겨온다.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창조력을 더 무섭게 폭발시키며 투쟁, 투쟁 또 전진해나가는 천만군민의 힘찬 발걸음도, 더 잘 살고 더 아름다워질 강성대국의 매일도 춤추는 분수에서 다 어려온다.

세상을 둘러보면 분수를 가진 나라들이 많다. 그러나 대동강의 춤추는 분수처럼 광만과 기쁨만이 아니라 새 힘과 투쟁의 열정을 안겨주며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그런 인민의 재부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더욱더 자랑스럽고 소중한 대동강의 춤추는 분수여, 우리 당의 이인위권의 위대한 사랑을 전하며 끝없이 솟구쳐라, 강성대국의 매일을 부르며 더 아름답게 설레이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장은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도시와 마을을 비롯하여 생활환경을 깨끗이 꾸리기 위한 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평성시 송령동을 찾게 되는데 사연이 있었다. 짧은 기간에 동의 모습을 선진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변모시킨 평성시 송령동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었기때문이다.

생활문화화합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여 도적인 보여주기 사업이 진행되고 수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경관을 배워갔다는 한 일꾼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먼저 동사무소에 들렀다.

동사무소일꾼은 미소를 지으며 자그마한 수첩을 내보였다.

지난해 몇달기간에 동안의 모든 살림집들의 울라리와

향로애가 꽃피운 모습 평성시 송령동에서

이렇게 시작된 그의 자랑은 끝이 없을상상였다.

동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자 며칠 안되어 동사무소로는 수많은 주민들이 찾아왔다.

도로정리를 할때는 보기에 도 시원하게 넓게 하고자, 놀이터들도 특색이 있게 꾸리자고 하면서 기발한 착상들과 의견들을 안고 찾아오는 그들을 보면서 일꾼들은 대중의 힘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부터 활기를 띠고 진행되었다. 출근과 퇴근후엔 스스로 일편에 뛰어들어 땅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치는 주민들의 불같은 모습이 어디서나 보이곤 하였다.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마련해가

변함없이 걷는 길 정주시 인민병원 의사 최영순동무

이제 기억을 더듬었다.

《오, 10년전 우리 병원에 임원하였던 그 장난꾸러기...》

최영순동무는 몰라보게 자란 청년의 모습을 대견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는 최영순동무가 정주시인민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시작하였을 때 처음으로 담당치료하였던 환자였다. 사경에 처하였다가 병원집단의 뜨거운 정성속에 완쾌된 어제의 어린이가 이렇듯 어엿하게 성장하였으니 최영순동무는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어찌히 왕진길을 걸고계시는군요. 제가 퇴원한 후에도 매일 집에 찾아와 돌봐주시더니...》

최영순동무의 왕진가방을 보며 청년이 하는 말이였다. 《우리의 본분인걸요.》

최영순동무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그 본분은 고마운

지계 꾸러지는데 매 가정도 알뜰히 꾸려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며 집집마다 약속이나 한듯 집안을 한복의 그림처럼 깨끗이 꾸려주었다는 59인민반장의 이야기. 장기출장을 갔던 남편이 달라진 마을의 모습에 그만 딴 마을로 착각하고 발길을 돌리었다가 다시 돌아와 집을 찾았다는 한 녀성의 이야기, 표창유가왔던 손자가 고향마을의 새 모습을 전수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초소로 떠나갔다는 한 노인 이야기...

자기 사는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사랑하고 거기에 뜨거운 맘을 바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향토와 더불어 이리 아름다운 생활이 펼쳐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송령동지구를 둘러보았다. 밝은 햇빛에 싸인 마을은 그 주민들의 모습처럼 정다웠다.

본사기자 윤지혜

제도가 심어준 삶의 좌표였다.

곳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하루와 같이 걷는 최근자의 왕진 길에는 무상치로써의 혜택속에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데서 더없는 보람을 찾는 그의 마음이 비껴있었다.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지난 20년동안 성실한 보건의료인으로 집단과 주민들의 존경을 받게 하였다.

그는 지난해에도 회복자 거의 불가능하던 한 환자들 스스로 말야 정성을 다해 완쾌시킴으로써 보건의료로서의 훌륭한 공로를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의료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일 한마음을 안고 최영순동무는 그날도 왕진길을 즐겁게 걸었다.

본사기자 정성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19일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을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달라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중국 길림육문중학교 친선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단장은 고향집방문을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혁명생애와 그이에 대한 조선인민의 경모심이 얼마나 열렬한가를 잘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전 자서사판과 수령관을 참관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단장은 감상록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나라의 기둥감들을 훌륭히 키워냈다고 확신한다. 전

체 교직원, 학생들이 명도자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바란다 고 했다.

이밖에 대표단은 조선혁명박물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인민대학습당 등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중국방문성과를 축하하는 시들 창작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성과적으로 방문하신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인들이 커다란 흥분과 열정을 안고 창작전투를 벌려 사상을 예술성이 높은 시들을 내놓았다.

조종천선의 강회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 열렬한 축하와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대혁신, 대비약으로 그이의 업적을 빛내어갈 천만군민의 불같은 신념이 맥박치는 작품들은 대중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서정시 《수령님과 함께

보호구관리 및 동식물종보호능력개발에 관한 기술도론회

보호구관리 및 동식물종보호능력개발에 관한 기술도론회가 19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문의 일꾼들, 과학자, 연구사들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세계보호련맹 아시아지역국대표단 성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김순일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서기장이, 아만 마커 까브라지 세계보호련맹 아시아지역국 국장이 발언하였다. 그들은 보호구관리 및 동식물종보호능력개발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토론회를 통하여 이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나누며 호상협조를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세계보호련맹에 대한 소개에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보호구관리에 대하여》, 《구월산국제생물보호구에 대하여》, 《보호구생 및 관리원칙에 대하여》, 《위계 높은목목에 대하여》 등의 제목으로 토론들이 있었다.

2300여정보 조성에 필요한 밤나무모 마련

새로운 밤나무모생산기술이 도입되어 은을 내고있다.

은 나리를 과일생산으로 전환시키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파수련합총회와 국가과학원 산림과학분원 경제림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경제적효과성이 큰 밤나무모생산방법을 연구완성하였다고 확신한다.

이런 짝에 품종밤을 직접 접하는 새 기술에 의한 나무모생산방법이 도입됨으로써 밤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과학적도가 마련되었다.

이 방법으로 모를 키우면 밤종자를 심어 돌아오는 절그루에 품종밤을 접붙이기하던 종전보다 나무모생산주기를 2년이나 앞당길수 있다.

은산, 청담밤나무농장 등지에서 지난해에 이 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로력과 재제를 절약하고 토지리용률을 훨씬 높였으며 밤나무모를 빨리 키워낼수 있게 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밤나무모생산에 새 기술 연구 도입

파수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그 우월성이 확증된 새 기술에 의한 밤나무모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있다.

이들의 애국열의에 의해 불철에 전국적으로 2300여정보의 밤나무밭을 조성할수 있는 나무모가 마련되었다.

배천, 봉천, 연안밤나무농장 등 각지 밤나무농장들이 과학적인 밤나무모생산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서 실적을 내고있다.

특히 은산밤나무농장 근로자들은 새로운 밤나무모생산방법을 확실히 제고하고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접붙이기작업을 끈기있게 함으로써 20만여그루의 모를 마련하는 혁신을 일일었다.

철산, 개성, 북청, 금야파수농장을 비롯한 각지의 파수농장들에서도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어 여러 품종의 과일나무에 대한 비배관리와 함께 밤나무모생산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실속있게 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먼길에 쌓인 로고도 푸실 사이없이 또다시 현지지도 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끝없이 노래하는 우리 인민의 심정을 그러한 시들도 창작되어

새로 창작된 시들은 력사의 방향타를 틀어잡으시고 선군혁명업무를 승리로 이끄시며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와 충성의 열정을 보여준 시들을 비롯하여 대고조전투쟁들에 힘차게 울려져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벨라리아 문화 및 슬라브문화 영화 감상회 진행

벨라리아공화국 문화 및 슬라브문화에 즈음한 영화감상회가 19일 대동강의교단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에는 위호련 니콜로프 주조 벨라리아공화국 립시대대사와 대사관성원이 초대되었다.

류승림부위원장장을 비롯한 조선벨라리아친선협회 성원들, 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벨라리아에 촬영된 《자유나 죽음이나》를 감상하였다.

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1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절에 즈음한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는

총련철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본사기자 장은영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반미반파쇼투쟁사에 빛나는 영웅적봉기

영웅적광주민봉기 30돐이 되었다. 이날을 맞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심장의 더운 불을 서슴없이 뿌린 항쟁용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위훈을 다시금 돌이켜보고있다.

광주민봉기는 미제와 군사파쇼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1979년 《유신》독재가 종말을 고한 후 남조선에서는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열망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하지만 《12.12 속군주데라》로 실권을 장악한 군부장관들은 1980년 봄 미제의 지령에 따라 높아가는 인민들의 민주화요구에 5.17 군사파쇼폭거로 대답해나섰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새로운 군부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일대 파쇼광란이었으며 또 하나의 《정권》강탈음모였다. 그러나 그 어떤 폭압도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의지를 막지 못하였다. 군부세력에 의해 반년나타지 못한 《계엄령》에 편이여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독재통치가 강화되자 남조선인민들은 드디어 대중적투쟁에 돌입하였으며 그것은 5월 18일 광주민봉기의 3대산봉기를 비롯하여, 대이성 정치적투쟁권리와 억압을 강요당할수 없기에, 군사파쇼독재를 대이성 용납할수 없기에 광주민봉기를 비롯한 투쟁을 전개하여 결연히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다.

광주민봉기는 외세의 지배와 군부독재자들의 반인민적이고 파쇼적인 통치를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념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적인 대중항쟁이었으며 동방근대역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영웅적인 투쟁봉기였다. 광주의 봉기자들은 《비상계엄령해제》, 《유신체제철폐》, 《민주주의개혁실시》, 《민주정부수립》, 《양키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들고 중무장한 《계엄군》과 맞서 무장항쟁을 과감히 전개하여 마침내는 도시에서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민봉기를 완결한 하나의 해방구로 만들었다. 그들은 도시가 군사파쇼당들의 폭압무력에 의해 걸점이 포위되고 완전한 봉쇄와 무차별적인 폭압공세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10일동안이나 도시를 사수하는 영웅적위훈을 떨쳤다. 그로 하여 광주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쇼투쟁사에 빛나는 한페이지를 기록하였으며 오늘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애국투쟁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광주민봉기는 미국의 비호와 조종밑에 감행된 군사파쇼당들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야만적인 탄압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그러나 항쟁용사들은 봉기를 통하여 죽을지언정 식민지파쇼독재의 노예로는 살지 않으려는 자주적 투쟁의 기상을 내외에 과시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 군부독재세력의 식민지파쇼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당시 항쟁에 떨쳐나섰던 수많은 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광주의 무등산에 분포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결연한 투쟁정신과 고귀한 넋은 오늘날도 살아 남조선인민들을 반미자주화와 반파쇼투쟁에 불태워 주고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안팎의 분열주의의성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북과 남의 단합과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수 없소이다.》

광주민봉기가 있는 때로부터 30년 세월이 흘렀지만 남조선에서 외세가 일고 파쇼가 없는 통일된 새세상이 실현되는 항쟁용사들의 넋은 아직도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지배정책은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이다.

미국은 지난 65년간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식민지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정의의 진흙로 투쟁이 계속되는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의 손아귀에 갇혀있고 미국의 검은 마수가 펼쳐 사회의 민주화과정과 단결을 허락하지 않았다. 남조선에서 봉기를 촉발해 무자비하게 짓밟아온 배후에서 조종한것으로, 그 이후 출현한 《5.6공》 군사파쇼독재와 《문민》 독재를 구구 비호무둔한데 미국이며 6.15 통일시대와 더불어 력사의 گوش에 밀려난 보수파당을 권력탈취에로 부추기고 《실용정권》출현의 산과역을 논것도 바로 미국이다.

남조선은 발판으로 하여 대조선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침략야망은 지금도 변함없이 없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을 동족대결과 파쇼독재부활에로 내몰면서 남조선사회의 자주적,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위협실현에 엄청난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북남사이에서 대결과 긴장상태가 더욱 격화되고 북침전쟁발발의 위험은 날로 짙어지고있다.

30년전 광주의 피바다우에서 솟아난 《민정당》의 비룡을 이어받은 《한나라당》파들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

《있어버린 10년》을 떠벌이며 남조선사회의 과거의 암흑시대에도 돌려세웠다. 《실용》 보수파당은 미국과의 《동맹정책》을 떠벌이며 남조선의 식민지적속화라는 더욱 심화시키고 인민들이 피흘려 정취한 민주화의 초보적인 성과들마저 모조리 짓밟고있다. 그들은 자주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북

남편을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의 극단으로 몰아가고있다. 그 무는 《선제타격》이니, 《반변사태》니 하고 떠들며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위협을 극도로 고조시키고있는 보수파당의 망당은 온 민족의 치맛은 분노와 중요성을 자아내고있다.

지금 반역파당은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인민탄압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파쇼당들은 반역 《정권》에 반기를 드는 각계 진보적대체들과 통일애국세력을 《친북파괴》로, 《세력진부세력》으로 매도하면서 그들에 대한 폭압공세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이것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집권안보》와 장기집권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이러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미국의 지배와 강점, 친미보수세력의 파쇼독재통치정권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침략야망은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가 결코 실현될수 없다는 광주민봉기의 피의 교훈을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광주항쟁용사들의 넋원을 실현하자면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이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는 데 미국의 식민지적비행기를 끌자라고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은 이룩하며 꿈에 또 소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근본담보가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지배와 보수세력의 반역통치를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에 걸기해나섬으로써 민족을 동진 《실용》 파쇼독재에 종지부를 찍고 광주항쟁용사들의 넋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것이다. 미제의 손때 묻은 주구인

반역 《정권》을 불사를 견결한 의지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도 성명을 발표하여 청년학생들에 대한 보수집권세력의 탄압탄핵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독재세력이 탄압에 방불할수록 그것은 곧 자들의 생명이라는 것만도 필연이라고 하면서 구속된 청년학생들을 석방시키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떨쳐나서 이면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독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호소하였다. 지난 5월 1일 민주로총과 진보연대를 비롯한 200여개 시민단체는 서울 여의도에 500여명인 서울 여의도에 500여명인 반 《정부》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발언자들은 로조말살책동에 미쳐날뛰며 민중의 삶을 무참히 짓밟고있

는 반역 《정권》을 끝장내는것만은 민주화를 실현하고 로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단결된 힘으로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보수당국을 심판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어 지난 12일 민주로총소속 로조연 5 000여명은 파쇼당국의 로조말살책동에 항의하여 서울에서 집회를 가졌다. 그들은 보수당국이 저들의 제국적선현에 방해가 되는 로조를 말살하고 소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깨닫고 깃발한 민주화와 로동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앞으로 죽음을 기다릴것이나 아니라 일어나 싸울것이라고 연명하였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로조말살》 집회를 심판하자! 《로조탄압》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

면서 투쟁기세를 올렸다. 《MBC》 방송

로조, 《연합TV뉴스》로조, 참여연대, 진보연대, 문화연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단체들은 지난 5월 6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깃발한 보수당국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파쇼독재통치로 민주화를 말살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히 억제하고있으므로 하여 국제적압박을 받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이 저들의 제국적선현에 방해가 되는 로조를 말살하고 소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깨닫고 깃발한 민주화와 로동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앞으로 죽음을 기다릴것이나 아니라 일어나 싸울것이라고 연명하였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로조말살》 집회를 심판하자! 《로조탄압》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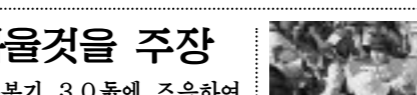
면서 투쟁기세를 올렸다. 《MBC》 방송

로조, 《연합TV뉴스》로조, 참여연대, 진보연대, 문화연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단체들은 지난 5월 6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깃발한 보수당국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파쇼독재통치로 민주화를 말살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히 억제하고있으므로 하여 국제적압박을 받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이 저들의 제국적선현에 방해가 되는 로조를 말살하고 소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깨닫고 깃발한 민주화와 로동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앞으로 죽음을 기다릴것이나 아니라 일어나 싸울것이라고 연명하였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로조말살》 집회를 심판하자! 《로조탄압》 분쇄하자!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

독재 《정권》과 맞서싸울것을 주장

《5.18 광주항쟁 30돐 기념 전국로동자대회》가 15일 광주 금남로의 옛 천남남도청앞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원들을 비롯한 로조연 1만 5000여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공무원로조 위원장 양승모 등이 발언하였다. 발언자들은 최근 당국의 로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특히 당국

이 광주봉기 30돐에 즈음하여 망월동묘지를 찾은 로동자대회에 참가하려는 공무원들에게 비열한 탄압조치를 취한데 대해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민주화를 실현하고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광주민봉기자들의 정신으로 독재 《정권》과 맞서싸워나갈 의지를 그들은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당국의 로조말살책동에 항의하는 남조선의 민주로총소속 로조연들

이렇게 상건의 비호속에 집권한 보수파당은 그 무는 《있어버린 10년》에 대해 오히려 떠들며 과거의 친미파쇼독재를 부활시키기 위해 미쳐 날뛰었다.

보수당국은 선행한 독재시기의 강제노동과 기구, 방시들을 되살리고 더욱 고강압적인 군부독재통치를 쟁취하는 야만한 단속업무를 사회의 파쇼화라는 단 두리워하지 않고 용감히 맞받아 싸워나갔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이 그로 결렬히 넋원하고 죽음도 서슴없이 바쳐 실현하려고 한 자주, 민주, 통일의 꿈은 오늘날도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현시기 남조선에서 미국의 적국적인 비호와 후원밑에 《실용》 통치체제의 파쇼독재체제부활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남조선에 내전 친미보수 《정권》을 등장시킨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6.15 공동선언발표이후 남조선에서 높아가는 자주, 민주, 통일의 기운에 당황한 미국은 저들에게 적극 의존하고 동족과 대결하는 보수 《정권》을 조작하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면서 친미보수세력을 권력탈취에로 내몰았다.

반미반파쇼투쟁사에 빛나는 영웅적봉기

영웅적광주민봉기 30돐이 되었다. 이날을 맞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심장의 더운 불을 서슴없이 뿌린 항쟁용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위훈을 다시금 돌이켜보고있다.

광주민봉기는 미제와 군사파쇼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1979년 《유신》독재가 종말을 고한 후 남조선에서는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열망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하지만 《12.12 속군주데라》로 실권을 장악한 군부장관들은 1980년 봄 미제의 지령에 따라 높아가는 인민들의 민주화요구에 5.17 군사파쇼폭거로 대답해나섰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새로운 군부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일대 파쇼광란이었으며 또 하나의 《정권》강탈음모였다. 그러나 그 어떤 폭압도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의지를 막지 못하였다. 군부세력에 의해 반년나타지 못한 《계엄령》에 편이여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독재통치가 강화되자 남조선인민들은 드디어 대중적투쟁에 돌입하였으며 그것은 5월 18일 광주민봉기의 3대산봉기를 비롯하여, 대이성 정치적투쟁권리와 억압을 강요당할수 없기에, 군사파쇼독재를 대이성 용납할수 없기에 광주민봉기를 비롯한 투쟁을 전개하여 결연히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다.

광주민봉기는 외세의 지배와 군부독재자들의 반인민적이고 파쇼적인 통치를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념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적인 대중항쟁이었으며 동방근대역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영웅적인 투쟁봉기였다. 광주의 봉기자들은 《비상계엄령해제》, 《유신체제철폐》, 《민주주의개혁실시》, 《민주정부수립》, 《양키는

전민항쟁이 새겨주는 진리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쇼투쟁역사는 인민을 동진 파쇼독재체제는 그에 맞서는 완강하고 끝없는 투쟁으로만 반기울어올 수 있다는 진리를 아로세기였다.

《유신》독재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새 장을 열어놓은 10월민주항쟁은 단결된 힘, 끝없는 투쟁은 그 어떤 파쇼의 쇠사슬도 끊어 버리고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었다.

《5.16 군사쿠데타》로 4.19의 넋원을 깃밟고 인민대에 군림한 《유신》독재는 미제의 부추김에 의해 사대매국적이고 파쇼적이며 분열주의적인 《유신체제》에 의거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애국세력에 대한 파쇼적탄압에 피는 되어 날뛰었다. 무지막지한 파쇼공약은 대중적인 10월민주항쟁을 촉발시켰다. 《독재라도》, 《유신헌법철폐》의 합성이 남조선적지역을 뒤덮는 속예 투쟁은 마산과 서울, 대구와 광주, 청주, 울산에 비롯한 넓은 지역을 휩쓸며 대중적인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미제와 괴뢰도당의 그 어떤 압박도 격노한 인민들의 힘을 당할수 없었다.

4.19인민봉기와 10월민주항쟁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계승한 광주민봉기는 미제의 부추김에 《유신》체제의 부활을 기도한 군부파쇼독재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정의로운 반

미제와 괴뢰도당의 그 어떤 압박도 격노한 인민들의 힘을 당할수 없었다. 4.19인민봉기와 10월민주항쟁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계승한 광주민봉기는 미제의 부추김에 《유신》체제의 부활을 기도한 군부파쇼독재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정의로운 반

반미반파쇼투쟁사에 빛나는 영웅적봉기

영웅적광주민봉기 30돐이 되었다. 이날을 맞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심장의 더운 불을 서슴없이 뿌린 항쟁용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위훈을 다시금 돌이켜보고있다.

광주민봉기는 미제와 군사파쇼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1979년 《유신》독재가 종말을 고한 후 남조선에서는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열망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하지만 《12.12 속군주데라》로 실권을 장악한 군부장관들은 1980년 봄 미제의 지령에 따라 높아가는 인민들의 민주화요구에 5.17 군사파쇼폭거로 대답해나섰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새로운 군부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일대 파쇼광란이었으며 또 하나의 《정권》강탈음모였다. 그러나 그 어떤 폭압도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의지를 막지 못하였다. 군부세력에 의해 반년나타지 못한 《계엄령》에 편이여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독재통치가 강화되자 남조선인민들은 드디어 대중적투쟁에 돌입하였으며 그것은 5월 18일 광주민봉기의 3대산봉기를 비롯하여, 대이성 정치적투쟁권리와 억압을 강요당할수 없기에, 군사파쇼독재를 대이성 용납할수 없기에 광주민봉기를 비롯한 투쟁을 전개하여 결연히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다.

광주민봉기는 외세의 지배와 군부독재자들의 반인민적이고 파쇼적인 통치를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념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적인 대중항쟁이었으며 동방근대역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영웅적인 투쟁봉기였다. 광주의 봉기자들은 《비상계엄령해제》, 《유신체제철폐》, 《민주주의개혁실시》, 《민주정부수립》, 《양키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들고 중무장한 《계엄군》과 맞서 무장항쟁을 과감히 전개하여 마침내는 도시에서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민봉기를 완결한 하나의 해방구로 만들었다. 그들은 도시가 군사파쇼당들의 폭압무력에 의해 걸점이 포위되고 완전한 봉쇄와 무차별적인 폭압공세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10일동안이나 도시를 사수하는 영웅적위훈을 떨쳤다. 그로 하여 광주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쇼투쟁사에 빛나는 한페이지를 기록하였으며 오늘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애국투쟁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광주민봉기는 미국의 비호와 조종밑에 감행된 군사파쇼당들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야만적인 탄압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그러나 항쟁용사들은 봉기를 통하여 죽을지언정 식민지파쇼독재의 노예로는 살지 않으려는 자주적 투쟁의 기상을 내외에 과시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 군부독재세력의 식민지파쇼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반미반파쇼투쟁사에 빛나는 영웅적봉기

영웅적광주민봉기 30돐이 되었다. 이날을 맞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심장의 더운 불을 서슴없이 뿌린 항쟁용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위훈을 다시금 돌이켜보고있다.

광주민봉기는 미제와 군사파쇼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1979년 《유신》독재가 종말을 고한 후 남조선에서는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열망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하지만 《12.12 속군주데라》로 실권을 장악한 군부장관들은 1980년 봄 미제의 지령에 따라 높아가는 인민들의 민주화요구에 5.17 군사파쇼폭거로 대답해나섰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새로운 군부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일대 파쇼광란이었으며 또 하나의 《정권》강탈음모였다. 그러나 그 어떤 폭압도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의지를 막지 못하였다. 군부세력에 의해 반년나타지 못한 《계엄령》에 편이여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독재통치가 강화되자 남조선인민들은 드디어 대중적투쟁에 돌입하였으며 그것은 5월 18일 광주민봉기의 3대산봉기를 비롯하여, 대이성 정치적투쟁권리와 억압을 강요당할수 없기에, 군사파쇼독재를 대이성 용납할수 없기에 광주민봉기를 비롯한 투쟁을 전개하여 결연히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다.

광주민봉기는 외세의 지배와 군부독재자들의 반인민적이고 파쇼적인 통치를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념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적인 대중항쟁이었으며 동방근대역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영웅적인 투쟁봉기였다. 광주의 봉기자들은 《비상계엄령해제》, 《유신체제철폐》, 《민주주의개혁실시》, 《민주정부수립》, 《양키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들고 중무장한 《계엄군》과 맞서 무장항쟁을 과감히 전개하여 마침내는 도시에서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민봉기를 완결한 하나의 해방구로 만들었다. 그들은 도시가 군사파쇼당들의 폭압무력에 의해 걸점이 포위되고 완전한 봉쇄와 무차별적인 폭압공세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10일동안이나 도시를 사수하는 영웅적위훈을 떨쳤다. 그로 하여 광주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쇼투쟁사에 빛나는 한페이지를 기록하였으며 오늘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애국투쟁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광주민봉기는 미국의 비호와 조종밑에 감행된 군사파쇼당들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야만적인 탄압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그러나 항쟁용사들은 봉기를 통하여 죽을지언정 식민지파쇼독재의 노예로는 살지 않으려는 자주적 투쟁의 기상을 내외에 과시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 군부독재세력의 식민지파쇼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우리 나라에서 핵융합에 성공한것과 관련하여 스위스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우리 나라에서 핵융합에 성공한것과 관련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조선사상연구소가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을 맞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과학자들이 핵융합분야에 성공시키

일본의 비난을 배격

소리를 늘어놓는것과 관련하여 그들은 핵연구에 대한 핵군축공약을 노력하지 않고 핵력량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는니, 이에 대해 일본은 《강한 우리》를 표시한다니 뛰니 하는

부당한 제재와 압력책동에 강경히 맞서

지나 3일 미집권자는 수리아가 미국의 안보에 《특별한 위협》을 조성하기때문에 11일을 단기로는 이 나라에 대한 제재를 1년 더 연장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미국이 떠드는 수리아의 《위협》이란 황당무계한것이다. 미국은 수리아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통해 이스라엘의 반수리아책동에 적극 편승하고있다. 배반하는 무장집행세력인 히즈볼라에 대한 수리아의 이른바 《스쿠드》 미사일 《제공》설을 류포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략책동이 이 한 실례이다. 얼마전 이스라엘대통령은 수리아가 말로는 평화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히즈볼라에 자국의 전지역을 타격할수 있는 《스쿠드》 미사일을 넘겨준것은 이스라엘의 국가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고 아부제기했다. 그야말로 도덕이 매를 드는 격의 철면피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또 대제 누가 누구를 위협한다 말인가. 누가 비록이도 주라는

반미반파쇼투쟁사에 빛나는 영웅적봉기

영웅적광주민봉기 30돐이 되었다. 이날을 맞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심장의 더운 불을 서슴없이 뿌린 항쟁용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위훈을 다시금 돌이켜보고있다.

광주민봉기는 미제와 군사파쇼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1979년 《유신》독재가 종말을 고한 후 남조선에서는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열망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하지만 《12.12 속군주데라》로 실권을 장악한 군부장관들은 1980년 봄 미제의 지령에 따라 높아가는 인민들의 민주화요구에 5.17 군사파쇼폭거로 대답해나섰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새로운 군부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일대 파쇼광란이었으며 또 하나의 《정권》강탈음모였다. 그러나 그 어떤 폭압도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의지를 막지 못하였다. 군부세력에 의해 반년나타지 못한 《계엄령》에 편이여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독재통치가 강화되자 남조선인민들은 드디어 대중적투쟁에 돌입하였으며 그것은 5월 18일 광주민봉기의 3대산봉기를 비롯하여, 대이성 정치적투쟁권리와 억압을 강요당할수 없기에, 군사파쇼독재를 대이성 용납할수 없기에 광주민봉기를 비롯한 투쟁을 전개하여 결연히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다.

광주민봉기는 외세의 지배와 군부독재자들의 반인민적이고 파쇼적인 통치를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념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적인 대중항쟁이었으며 동방근대역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영웅적인 투쟁봉기였다. 광주의 봉기자들은 《비상계엄령해제》, 《유신체제철폐》, 《민주주의개혁실시》, 《민주정부수립》, 《양키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들고 중무장한 《계엄군》과 맞서 무장항쟁을 과감히 전개하여 마침내는 도시에서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민봉기를 완결한 하나의 해방구로 만들었다. 그들은 도시가 군사파쇼당들의 폭압무력에 의해 걸점이 포위되고 완전한 봉쇄와 무차별적인 폭압공세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10일동안이나 도시를 사수하는 영웅적위훈을 떨쳤다. 그로 하여 광주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쇼투쟁사에 빛나는 한페이지를 기록하였으며 오늘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애국투쟁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광주민봉기는 미국의 비호와 조종밑에 감행된 군사파쇼당들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야만적인 탄압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그러나 항쟁용사들은 봉기를 통하여 죽을지언정 식민지파쇼독재의 노예로는 살지 않으려는 자주적 투쟁의 기상을 내외에 과시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 군부독재세력의 식민지파쇼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반미반파쇼투쟁사에 빛나는 영웅적봉기

영웅적광주민봉기 30돐이 되었다. 이날을 맞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심장의 더운 불을 서슴없이 뿌린 항쟁용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위훈을 다시금 돌이켜보고있다.

광주민봉기는 미제와 군사파쇼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1979년 《유신》독재가 종말을 고한 후 남조선에서는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열망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하지만 《12.12 속군주데라》로 실권을 장악한 군부장관들은 1980년 봄 미제의 지령에 따라 높아가는 인민들의 민주화요구에 5.17 군사파쇼폭거로 대답해나섰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새로운 군부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일대 파쇼광란이었으며 또 하나의 《정권》강탈음모였다. 그러나 그 어떤 폭압도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의지를 막지 못하였다. 군부세력에 의해 반년나타지 못한 《계엄령》에 편이여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독재통치가 강화되자 남조선인민들은 드디어 대중적투쟁에 돌입하였으며 그것은 5월 18일 광주민봉기의 3대산봉기를 비롯하여, 대이성 정치적투쟁권리와 억압을 강요당할수 없기에, 군사파쇼독재를 대이성 용납할수 없기에 광주민봉기를 비롯한 투쟁을 전개하여 결연히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다.

광주민봉기는 외세의 지배와 군부독재자들의 반인민적이고 파쇼적인 통치를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념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적인 대중항쟁이었으며 동방근대역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영웅적인 투쟁봉기였다. 광주의 봉기자들은 《비상계엄령해제》, 《유신체제철폐》, 《민주주의개혁실시》, 《민주정부수립》, 《양키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들고 중무장한 《계엄군》과 맞서 무장항쟁을 과감히 전개하여 마침내는 도시에서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민봉기를 완결한 하나의 해방구로 만들었다. 그들은 도시가 군사파쇼당들의 폭압무력에 의해 걸점이 포위되고 완전한 봉쇄와 무차별적인 폭압공세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10일동안이나 도시를 사수하는 영웅적위훈을 떨쳤다. 그로 하여 광주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쇼투쟁사에 빛나는 한페이지를 기록하였으며 오늘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애국투쟁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광주민봉기는 미국의 비호와 조종밑에 감행된 군사파쇼당들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야만적인 탄압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그러나 항쟁용사들은 봉기를 통하여 죽을지언정 식민지파쇼독재의 노예로는 살지 않으려는 자주적 투쟁의 기상을 내외에 과시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 군부독재세력의 식민지파쇼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반미반파쇼투쟁사에 빛나는 영웅적봉기

영웅적광주민봉기 30돐이 되었다. 이날을 맞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심장의 더운 불을 서슴없이 뿌린 항쟁용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위훈을 다시금 돌이켜보고있다.

광주민봉기는 미제와 군사파쇼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1979년 《유신》독재가 종말을 고한 후 남조선에서는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열망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하지만 《12.12 속군주데라》로 실권을 장악한 군부장관들은 1980년 봄 미제의 지령에 따라 높아가는 인민들의 민주화요구에 5.17 군사파쇼폭거로 대답해나섰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새로운 군부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일대 파쇼광란이었으며 또 하나의 《정권》강탈음모였다. 그러나 그 어떤 폭압도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의지를 막지 못하였다. 군부세력에 의해 반년나타지 못한 《계엄령》에 편이여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독재통치가 강화되자 남조선인민들은 드디어 대중적투쟁에 돌입하였으며 그것은 5월 18일 광주민봉기의 3대산봉기를 비롯하여, 대이성 정치적투쟁권리와 억압을 강요당할수 없기에, 군사파쇼독재를 대이성 용납할수 없기에 광주민봉기를 비롯한 투쟁을 전개하여 결연히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다.

광주민봉기는 외세의 지배와 군부독재자들의 반인민적이고 파쇼적인 통치를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념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적인 대중항쟁이었으며 동방근대역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영웅적인 투쟁봉기였다. 광주의 봉기자들은 《비상계엄령해제》, 《유신체제철폐》, 《민주주의개혁실시》, 《민주정부수립》, 《양키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들고 중무장한 《계엄군》과 맞서 무장항쟁을 과감히 전개하여 마침내는 도시에서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민봉기를 완결한 하나의 해방구로 만들었다. 그들은 도시가 군사파쇼당들의 폭압무력에 의해 걸점이 포위되고 완전한 봉쇄와 무차별적인 폭압공세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10일동안이나 도시를 사수하는 영웅적위훈을 떨쳤다. 그로 하여 광주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쇼투쟁사에 빛나는 한페이지를 기록하였으며 오늘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애국투쟁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광주민봉기는 미국의 비호와 조종밑에 감행된 군사파쇼당들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야만적인 탄압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그러나 항쟁용사들은 봉기를 통하여 죽을지언정 식민지파쇼독재의 노예로는 살지 않으려는 자주적 투쟁의 기상을 내외에 과시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 군부독재세력의 식민지파쇼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반미반파쇼투쟁사에 빛나는 영웅적봉기

영웅적광주민봉기 30돐이 되었다. 이날을 맞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심장의 더운 불을 서슴없이 뿌린 항쟁용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위훈을 다시금 돌이켜보고있다.

광주민봉기는 미제와 군사파쇼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1979년 《유신》독재가 종말을 고한 후 남조선에서는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열망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하지만 《12.12 속군주데라》로 실권을 장악한 군부장관들은 1980년 봄 미제의 지령에 따라 높아가는 인민들의 민주화요구에 5.17 군사파쇼폭거로 대답해나섰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새로운 군부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일대 파쇼광란이었으며 또 하나의 《정권》강탈음모였다. 그러나 그 어떤 폭압도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의지를 막지 못하였다. 군부세력에 의해 반년나타지 못한 《계엄령》에 편이여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독재통치가 강화되자 남조선인민들은 드디어 대중적투쟁에 돌입하였으며 그것은 5월 18일 광주민봉기의 3대산봉기를 비롯하여, 대이성 정치적투쟁권리와 억압을 강요당할수 없기에, 군사파쇼독재를 대이성 용납할수 없기에 광주민봉기를 비롯한 투쟁을 전개하여 결연히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섰다.

광주민봉기는 외세의 지배와 군부독재자들의 반인민적이고 파쇼적인 통치를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념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적인 대중항쟁이었으며 동방근대역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영웅적인 투쟁봉기였다. 광주의 봉기자들은 《비상계엄령해제》, 《유신체제철폐》, 《민주주의개혁실시》, 《민주정부수립》, 《양키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들고 중무장한 《계엄군》과 맞서 무장항쟁을 과감히 전개하여 마침내는 도시에서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민봉기를 완결한 하나의 해방구로 만들었다. 그들은 도시가 군사파쇼당들의 폭압무력에 의해 걸점이 포위되고 완전한 봉쇄와 무차별적인 폭압공세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10일동안이나 도시를 사수하는 영웅적위훈을 떨쳤다. 그로 하여 광주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쇼투쟁사에 빛나는 한페이지를 기록